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개방성, 고정관념,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김경희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Openness, Preoccupati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n Multicultural Efficacy of nursing students

Kyoung-Hee Kim

Department of Nursing,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개방성, 고정관념,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효능감의 정도를 알아보고,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다문화 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B, Y시의 간호대학생 29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17년 5월 8일부터 5월 26일까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다문화 효능감은 평균 3.92 ± 0.54 점 이었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은 연령($F=4.516, p=.012$), 다문화 학생과의 수업경험($t=2.131, p=.034$), 외국어 수강경험($t=2.133, p=.034$), 외국인 친구($t=2.759, p=.006$)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다문화 개방성, 고정관념,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효능감과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 효능감은 다문화 개방성($r=.396, p<.001$), 다문화 수용성($r=.471,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고정관념($r=-.464, p<.001$)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외국인 친구($t=2.021, p=.048$), 고정관념($t=-6.363, p<.001$), 다문화 수용성($t=6.122, p<.001$)으로 나타났고, 다문화 효능감을 35.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degree of multicultural openness, preoccupati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multicultural efficacy, the factors influencing of multicultural efficacy of nursing students and to provide the basic data to increased multicultural efficacy. This research involved 299 nursing students in B and Y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8, 2017 to 28.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WIN 21.0 program. In results of the study, multicultural efficacy appeared as 3.92 ± 0.54 .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multicultural efficacy with age, experience of class with multicultural students, experience of other languages class, foreign friends.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multicultural efficacy and multicultural openness($r=.396, p<.001$), between multicultural efficacy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r=.471, p<.001$),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multicultural efficacy and preoccupation ($r=-.464, p<.001$). Regression analysis showed 36.1% of variance in nursing students multicultural efficacy can by age, foreign friends, preoccupati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rough this research requires the fellow study to determine the various factors affecting multicultural efficacy of nursing students.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ment education and program that can enhance multicultural efficacy is required.

Keywords : Multicultural Openness, Preoccupati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Multicultural Efficacy, Nursing Student

*Corresponding Author : Kyoung-Hee Kim(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Tel: +82-10-3276-6285 email: kkhee6285@hanmail.net

Received May 15, 2018

Revised (1st June 14, 2018, 2nd July 4, 2018)

Accepted August 3, 2018

Published August 31, 2018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다문화 사회화로의 진전은 혼인 적령자의 배우자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인력의 공급을 증가시키며, 새로운 사고와 정체성의 형성에도 기여하는 초국가적인 연결망을 가능하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문화 사회는 사회분열과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1]. 특히 한국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정도는 38개국 중에서 21위로 상당히 취약하며[2],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란 다문화 자녀들이 청소년기를 거쳐 대학생이 됨으로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절실함을 나타낸다[3]. 더 나아가 대학 졸업 후 취업과 함께 다양한 민족 및 인종들과 직장생활, 심지어 결혼생활을 할 사회문화 속에 대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인식과 태도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에서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지식,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관심과 다문화 대상자를 도우려는 적극적인 실천은 당연한 과제가 되었다[4]. 또한 한국 사회에서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보건의료 전문인력은 다양한 국적의 다문화 대상자를 만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과정으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래의 간호사로 준비되는 간호대학생은 다문화 사회의 다문화 대상자를 간호해야할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나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다문화 효능감이 준비되어야 한다[5]. 다문화 효능감은 다문화 환경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신감으로 다문화 효능감이 부족할 경우 문화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고 대상자에 대해 가지는 고정관념도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6]. 다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가 근거가 된다[7]. 다른 문화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으나 간호대학생에게 있어 다문화에 대한 수용이 아니라 고정관념과 차별이 있다면 다문화를 수용하는 태도와 인식 수준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효능감 향상과 고정관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개방과 수용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문화 개방성은 다른 나라 사람이나 문화를 알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수용성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과 어울려 지내고 만

나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인종 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상자를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정도로 정의될 수 있다[8]. 다문화 개방성과 수용성은 임상현장에서 다문화 대상자를 돌보아야 할 간호사로서 갖추어야할 자질로서 학생간호사에게 다문화 개방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은 다양한 실무현장 즉, 지역사회 보건의 모자보건사업 대상자, 학교에서의 다문화 가정 자녀, 산업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등의 다문화 대상자[9]를 만날 예비 전문 간호인력으로써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접하고 협력하며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개인의 문화적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간호를[10]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효능감과 관련된 연구는 다문화 인식, 다문화 태도, 다문화 효능감[5], 다문화 대상자에 대한 태도와 다문화 효능감[11], 다문화 감수성과 다문화 효능감[12]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효능감과 관련된 연구는 다문화 효능감 향상을 통한 다문화 대상자의 간호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개방성, 수용성, 다문화 고정관념 및 편견이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다문화 효능감의 향상을 위한 중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다문화 효능감의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상자의 다문화 개방성, 고정관념, 다문화 개방성, 다문화 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 셋째, 대상자의 다문화 개방성, 고정관념, 다문화 개방성, 다문화 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넷째, 대상자의 다문화 개방성, 고정관념, 다문화 개

방성이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개방성, 다문화 고정관념,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효능감의 정도를 알아보고,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B, Y시의 간호학과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여 동의를 얻은 3개 간호학과에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후 동意的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연구 참여자의 권리,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설문지 참여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 동의서에 서명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의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효과크기 .15, 예측변수 13개로 하였을 때 필요한 대상자수는 131명이었다. 자료수집은 2017년 5월 8일부터 5월 2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320부를 배부하여 310부를 회수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한 11부를 제외한 299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다문화 개방성

다문화 개방성은 인종, 종교, 문화의 다양성을 얼마나 인정하고 받아들이는지, 지역사회나 이웃으로 외국 이주민과의 공존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여기는지, 개방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취하는지를 보여주는 인지적 신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개방성을 측정하기 위해 An et al[13]이 개발한 한국형 다문화 수용성 척도(Korean Multi-culturalism Inventory:KMCI) 중 다문화 개방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

우 그렇다’ 6점까지의 6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개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문화 개방성 척도는 An et al[1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8$ 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2$ 였다.

2.3.2 고정관념

고정관념은 외국인이나 이주민에 대한 편견적 태도와 고정관념 정도와 이들을 차별적으로 대하려는 차별적 행동 경향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개방성을 측정하기 위해 An et al[13]이 개발한 한국형 다문화 수용성 척도(Korean Multi-culturalism Inventory:KMCI) 중 고정관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6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고정관념과 차별이 높음을 의미한다. 고정관념 척도는 An et al[13]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9$ 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2.3.3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수용성은 문화적 차이, 문화다양성의 차원,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의 차원, 국민정체성, 시민의식 차원 등 세가지 차원으로 구성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14], 본 연구에서는 An et al[13]이 개발하여 사용한 도구를 Kim[15]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다양성(6문항), 관계성(6문항), 보편성(6문항)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15]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70$ 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65$ 였다.

2.3.4 다문화 효능감

다문화 효능감은 다문화와 관련된 자신감으로 다문화와 관련된 개인의 지각된 능력수준을 의미하며[16] 개인이 일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결과를 산출하는데 요구되는 일련의 조치를 조직하고 실행해낼 수 있는 자기 확신의 자신감과 신념을 말한다[17]. 본 연구에서 다문화 효능감 척도는 Guyton, Wesche[18]에 의해 개발된 것을 Lim, Oh[19]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한 도구에서 일반기능, 수업기능, 인간관계 증진, 다문화 가정배려 등 4개의 요인 14문항 중 수업기능 측면을 제외한 총 10문항

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 Lim[2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였고, 대상자의 다문화 개방성, 다문화 고정관념,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효능감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개방성, 고정관념,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효능감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분석은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다문화 개방성, 고정관념,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효능감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고,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의 변수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서 남자 30명(10.0%), 여자 269명(90.0%)으로 여자가 많았다. 연령은 20세 미만이 139명(46.5%), 종교는 무교가 184명(61.5%)으로 많았다. 다문화 학생과의 수업 경험은 '없다'가 229명(76.6%), 다문화 관련 수업은 '없다'가 154명(51.5%)으로 많았다. 외국어 수강 경험은 '있다'가 262명(87.6%), 외국인 친구는 '없다'가 255명(85.3%)으로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9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30	10.0
	Female	269	90.0
Age	<20	139	46.5
	20-22	126	42.1
	>23	34	11.4
Religion	Have	115	38.5
	Have not	184	61.5

Experience of class with Multicultural students	Had	70	23.4
	Had not	229	76.6
Multicultural class	Had	145	48.5
	Had not	154	51.5
Experience of other languages class	Had	262	87.6
	Had not	37	12.4
Foreign friends	Have	44	14.7
	Have not	255	85.3

3.2 연구대상자의 다문화 개방성, 고정관념,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효능감의 정도

연구대상자의 다문화 개방성과 고정관념,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효능감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다문화 개방성은 평균 4.25±0.95점이었고, 고정관념은 평균 1.96±0.79점, 다문화 수용성은 평균 3.36±0.35점, 다문화 효능감은 평균 3.92±0.54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gree of Multicultural Openness, Preoccupati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Multicultural Efficacy (N=299)

Variable	M±SD	Min	Max
Multicultural openness	4.25±0.95	1.75	6.00
Preoccupation	1.96±0.79	1.00	5.00
Multicultural acceptability	3.36±0.35	2.38	4.69
Multicultural efficacy	3.92±0.54	2.60	5.00

3.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개방성, 고정관념, 다문화 수용성과 다문화 효능감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개방성, 고정관념,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효능감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개방성의 차이는 연령($F=4.158, p=.017$)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사후분석에서는 20세 미만이 23세 이상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고정관념의 차이는 다문화 학생과의 수업경험($t=2.635, p=.009$), 외국어 수강 경험($t=2.425, p=.016$)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는 연령($F=3.127, p=.045$), 다문화 학생과의 수업경험($t=3.367, p=.001$), 다문화 관련 수업($t=2.518, p=.012$)에서 유의한 차이를

Table 3. Difference of Multicultural Openness, Preoccupati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Multicultural Effica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99)

Characteristics	Categories	Multicultural Openness		Preoccupati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Multicultural Efficacy	
		M±SD	t/F (p) Scheff's	M±SD	t/F (p) Scheff's	M±SD	t/F(p) Scheff's	M±SD	t/F(p) Scheff's
Gender	Male	3.97±0.96	1.713	2.13±0.69	1.219	3.29±0.34	1.174	3.94±0.44	.239
	Female	4.28±0.95	(.088)	1.94±0.80	(.224)	3.37±0.35	(.241)	3.92±0.55	(.811)
Age	<20 ^a	4.40±0.91	4.158	1.90±0.79	2.404	3.38±0.35	3.127	4.00±0.54	4.516
	20-22 ^b	4.18±0.96	(.017)	1.96±0.78	(.092)	3.38±0.35	(.045)	3.88±0.50	(.012)
	≥23 ^c	3.92±1.01	a>c	2.23±0.84	-	3.22±0.35	-	3.72±0.62	a>c
Religion	Have	4.29±0.93	.616	1.97±0.79	.153	3.37±0.35	.236	3.91±0.51	.293
	Have not	4.22±0.97	(.538)	1.96±0.80	(.879)	3.36±0.35	(.814)	3.93±0.56	(.770)
Experience of class with Multicultural students	Had	4.48±0.90	2.328	1.75±0.61	2.635	3.48±0.35	3.367	4.04±0.56	2.131
	Had not	4.18±0.96	(.021)	2.03±0.83	(.009)	3.32±0.34	(.001)	3.89±0.53	(.034)
Multicultural class	Had	4.29±0.94	.636	1.99±0.83	.506	3.41±0.35	2.518	3.96±0.51	1.153
	Had not	4.21±0.97	(.525)	1.94±0.76	(.614)	3.31±0.35	(.012)	3.89±0.56	(.250)
Experience of other languages class	Had	4.26±0.94	.726	1.92±0.77	2.425	3.37±0.36	1.304	3.95±0.53	2.133
	Had not	4.14±1.07	(.469)	2.26±0.91	(.016)	3.29±0.30	(.193)	3.75±0.56	(.034)
Foreign friends	Have	4.48±0.95	1.732	1.80±0.76	1.476	3.45±0.36	1.841	4.13±0.57	2.759
	Have not	4.21±0.95	(.084)	1.99±0.80	(.141)	3.35±0.35	(.067)	3.89±0.52	(.006)

나타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에서 연령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사후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의 차이는 연령(F=4.516, p=.012), 다문화 학생과의 수업경험(t=2.131, p=.034), 외국어 수강 경험(t=2.133, p=.034), 외국인 친구(t=2.759, p=.006)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분석에서 연령은 20세 미만이 23세 이상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연구대상자의 다문화 개방성, 고정관념,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효능감과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다문화 개방성, 고정관념,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다문화 효능감은 다문화 개방성(r=.396, p<.001), 다문화 수용성(r=.471,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고정관념(r=-.464, p<.001)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문화 개방성은 다문화 수용성(r=.473,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고정관념은 다문화 개방성(r=-.406, p<.001), 다문화 수용성(r=-.250, p<.001)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Multicultural Openness, Preoccupati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Multicultural Efficacy (N=299)

Variable	Multicultural openness r(p)	Preoccupation r(p)	Multicultural acceptability r(p)	Multicultural efficacy r(p)
Multicultural openness	1			
Preoccupation	-.406 (<.001)	1		
Multicultural acceptability	.473 (<.001)	-.250 (<.001)	1	
Multicultural efficacy	.396 (<.001)	-.464 (.001)	.471 (.001)	1

3.5 연구대상자의 다문화 개방성, 고정관념,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대상자의 다문화 개방성, 고정관념,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5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다문화 개방

Table 5. Factors influencing Multicultural Efficacy

(N=299)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3.043	.448		6.799	<.001
Age	-.016	.012	-.062	-1.293	.197
Experience of class with Multicultural students*	.044	.062	.034	.702	.483
Experience of other languages class*	.079	.077	.048	1.023	.307
Foreign friends*	.141	.073	.094	2.021	.048
Multicultural openness	.051	.032	.090	1.593	.112
Preoccupation	-.223	.035	-.330	-6.368	<.001
Multicultural acceptability	.505	.082	.329	6.122	<.001

Adj R²=.355, F=24.392(p<.001)

*Dummy variables

성, 고정관념, 다문화 수용성과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연령, 다문화 학생과의 수업 경험(없다=0, 있다=1), 외국어 수강 경험(없다=0, 있다=1), 외국인 친구(없다=0, 있다=1)를 더미변수 처리하고 투입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확인한 결과, 모형의 독립성 검증에서 Durbin-watson은 1.840으로 기준점 2에 매우 근접하여 잔차들간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은 적합하였다.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 .683-.965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IF)는 1.036-1.465로 모두 10보다 낮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다문화 효능감에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F=24.392, p<.001), 수정된 결정계수(R²)는 .355로 설명력은 35.5%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외국인 친구(t=2.021, p=.048), 고정관념(t=-6.368, p<.001), 다문화 수용성(t=6.122, p<.001)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개방성, 고정관념,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효능감의 정도를 알아보고,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다문화 효능감은 평균 3.92점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Lim[20]의 연구에서 나타난 3.55점보다는 높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21]의 연

구에서 나타난 4점보다는 낮았다. 대학에서는 다문화 유학생들의 유입이 많아지고, 간호학과에서는 다문화 교양 과목 신설을 통한 다문화 교육 등이 이루어져 다문화 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는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이 다문화 대상자를 단순하게 만나는 경험이나 교과목 교육만으로는 다문화 효능감의 향상을 가져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미래의 간호사로 성장해야 할 간호대학생은 다문화 대상자를 간호하기 위한 실제적인 경험이 포함된 다문화 교육을 통해 다문화 효능감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은 연령, 다문화 학생과의 수업경험, 외국어 수강 경험, 외국인 친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Shin[22]의 연구에서 이웃에 다문화 가정유무, 다문화 관련 행사 참여 유무, 임상실습 경험유무 등에서 차이를 나타낸 결과와는 상이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으로 비교에는 다소 한계가 있으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인식의 차이에서 학년, 외국인 친구 유무[2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의 차이에서 외국인 수강 경험 유무, 외국인과의 교류 경험, 외국인 친구 유무, 다문화 관련 수업 경험의 결과[24]와는 유사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 효능감은 다문화 인식, 문화적 역량 등과 함께 외국인 친구, 외국어 수강경험, 다문화 관련 경험 등 다문화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다문화 효능감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는 반복연구를 통해 다문화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와 학과는 외국어 이수 및 외국어 능력 향상, 외국 문화체험, 자원봉사, 교과 외 활동 등 [21]과 같은 다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교과목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 효능감은 다문화 개방성, 수용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다문화 효능감과 다문화 개방성이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25]와 유사하고 다문화 효능감과 다문화 수용성이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 [26-27]와도 유사하다. 다문화 개방성은 다문화 사람과 어울려 지내고 만나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 것[28]으로, 다문화 수용성은 다문화 대상자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사회적 가치와 편견을 갖지 않고 다양한 인종의 공존에 대한 협력과 개방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 [14][29]으로서 간호대학생이 다양한 대상자를 간호하기 위해 가져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간호학과의 다문화 교육이 교과과목으로 강의실에 한정되지 않고 다문화 이론과 실습이 연계되고, 학교 내에서 유학생들과의 실제적인 접촉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다문화 효능감은 고정관념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다문화 효능감과 고정관념이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30]와 유사하다. 고정관념은 개인이나 집단과 특정 대상에 대해 갖고 있는 왜곡된 신념이나 믿음으로서 관련 대상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고 특정한 행동을 유발하는데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고정관념은 다문화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거리감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문제로 전이될 수도 있어 대학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선행과제라 할 것이다. 다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은 형성되고 나면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어[31] 간호대학생은 고정관념이 형성되기 전에 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화적 경험에 노출되고,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유익한 경험을[32] 통해 다문화 개방성과 수용성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외국인 친구, 고정관념, 다문화 수용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외국인 친구는 가족이나 친구, 지역사회, 학교 및 학원, 종교, 미디어, 외국어, 여행 등과 같은 비형식적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겪는 다양한 경험이 다문화 수용과 개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32]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은 다문화 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다문화 대상자와 만날 수 있는 다문화 행사 참여, 다문화 대상자와 관련된 자원봉사 등의 기회를 통하여 다문화 대상자를 많이 접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생은 고정관념을 줄이고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 풍습, 음식 체험 프로그램, 언어 교육 등의 문화적 지식의 수준을 높이고, 다문화 대상자와 함께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색[11]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다문화 대상자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며 고정관념을 극복한 다문화 간호를 제공할 수 있고, 다문화 대상자의 다양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간호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개방성은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아 다문화 개방성이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확인된 결과[25]와는 차이를 보였다. 다문화 개방성은 다른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개방적일 수 있으므로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다문화 개방성이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은 다문화 효능감 향상을 위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려는 노력과 함께 다문화 대상자를 간호하기 위한 훈련과 기술의 습득이 필요[33]함을 확인하였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개방성, 고정관념,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다문화 효능감의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대상자의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외국인 친구, 고정관념, 다문화 효능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일부 지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간호대학생 전체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고, 다문화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J. Y. Yo, "A Research on Intercultural Sensitivity of Regular High Schools and Foreign Language High Schools Students - Focused on comparison between regular high schools and foreign language high schools in Kyeonggi Province -", *Social Studies Education*, Vol.50, No.3, pp.29-47, 2011.
UCI: <http://uci.or.kr/G704-001280.2011.50.3.002>
- [2] J. H. Kim, "Improving Multicultural Attitudes of Korean Adolescents in Response to the Crisis of Multiculturalism: International Comparison and Exploration of Factors Affecting Multicultural Receptivity", *Crisisonomy*, Vol.8, No.6, pp.183-208, 2012.
UCI: <http://uci.or.kr/G704-SER000001473.2012.8.6.010>
- [3] I. S. Kim, S. J. Lee, "A study on the influence of male/female college students' self-efficacy, emphatic ability, multi-cultural experience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4, No.11, 1-32, 2017.
DOI: <https://dx.doi.org/10.21509/KJYS.2017.11.24.11.1>
- [4] M. Kim, "A Comparison Study on Multicultural Attitude and Relating Factor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Non-Nursing Major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4, pp.2310-2319, 2014.
DOI: <https://doi.org/10.5762/KAIS.2014.15.4.2310>
- [5] N. H. Kim, S. Y. Lim, "Relationships between multicultural awareness, multicultural attitude and multicultural efficacy among nursing students",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Vol.7, No.4, pp.169-184, 2014.
DOI: <https://dx.doi.org/10.14328/MES.2014.12.31.169>
- [6] D. M. Perkins, C. J. Mebert, "Efficacy of multicultural education for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36, No.4, pp.497-512, 2005.
DOI: <https://dx.doi.org/10.1177/0022022105275964>
- [7] K. H. Hughs, L. J. Hood, "Teaching methods and an outcome tool for measuring cultural sensitivity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Vol.18, No.1, pp.57-62, 2007.
DOI: <https://dx.doi.org/10.1177/1043659606294196>
- [8] I. J. Yoon, Y. H. Song, "South Koreans' perceptions of national identity and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Vol.23, No.1, pp.153-192, 2011.
UCI: <http://uci.or.kr/G704-000548.2011.23.1.008>
- [9] H. Y. Kang, S. Y. Han, "A Study on Social Distance of Nursing Students toward Minority Groups in a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27, No.1, pp.166-178, 2013.
DOI: <https://dx.doi.org/10.5932/JKPHN.2013.27.1.166>
- [10] S. Y. Han, "Factors Influencing to the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ing-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6, No.4, pp.73-86, 2016.
UCI: <http://uci.or.kr/G704-001586.2016.16.4.040>
- [11] J. Y. Cho, M. S. Youn, "A study on attitude toward immigrants and multicultural efficiency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ulticultural Health*, vol. 5, no. 2, pp. 31-38, 2015
- [12] M. J. Chae, J. I. Kim, "Development of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and evaluation of its effects on multicultural sensitivity and efficacy",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30, No.1, pp.70-82, 2016.
DOI: <https://dx.doi.org/10.5932/JKPHN.2016.30.1.70>
- [13] S. S. An, M. S. Min, Y. S. Kim, K. M. Kim, M. J. Lee, "A study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Korea", Seoul :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14] J. M. Hwang, "Analysi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new politics of membership",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142, pp.152-184, 2010.
UCI: <http://uci.or.kr/G704-000745.2010.53.4.006>
- [15] D. J. Kim,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voluntary work on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2013.
- [16] S. H. Jee, G. E. Kim, "Impact of parents' attitude on multicultural to multicultural efficacy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Multi-Cultural Contents Studies*, Vol.11, pp.81-105, 2011.
UCI: <http://uci.or.kr/G704-SER000001538.2011.11.007>
- [17] Y. J. Cho, "The effects of perceptions of multicultural on efficiency esteem of multicultural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Vol.23, No.3, pp.43-58, 2010.
UCI: <http://uci.or.kr/G704-000635.2010.23.3.013>
- [18] E. M. Guyton, M. V. Wesche, "The multicultural efficacy scale: development, item selection, and reliability", *Multicultural Perspective*, Vol.7, No.4, pp.21-29, 2005.
DOI: https://dx.doi.org/10.1207/s15327892mcp0704_4
- [19] J. Y. Lim, Y. J. Oh, "Perceptions and Efficacy of the Multiculture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48, No.10, pp.143-157, 2010.
DOI: <https://dx.doi.org/10.6115/khea.2010.48.10.143>
- [20] N. H. Kim, S. Y. Lim,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awareness, multicultural attitude and multicultural efficacy among nursing students",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Vol.7, No.4, pp.169-184, 2014.
DOI: <https://doi.org/10.14328/MES.2014.12.31.169>
- [21] S. H. Choi, "Factors affecting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 [22] M. S. Kim, D. S. Shin, "Factors Influencing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8, No.6, pp.3437-3450, 2016.
UCI: <http://uci.or.kr/G704-000930.2016.18.6.008>
- [23] S. H. Kwon, M. S. Kim, "Factors influencing multicultural attitud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8, No.2, pp.1123-1135, 2016.
UCI: <http://uci.or.kr/G704-000930.2016.18.2.024>
- [24] S. Y. Yang, "The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s of cultural exchanges, self-efficacy, and cultur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Contents Society*, Vol.14, No.7, pp.334-345, 2014.

DOI: <https://dx.doi.org/10.5392/JKCA.2014.14.07.334>

- [25] M. H. Rho, "The influence of gender and empathy on middle school students multicultural openness and multicultural 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2012.
- [26] M. H.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experience, reflective thinking,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multicultural teaching efficacy among home educators of multicultural famil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2015.
- [27] H. J. Kwon, "Analysis on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multicultural education, experience, multicultural climate, multicultural efficacy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perceived by multicultural education oriented schools elementary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Jungwon University, Chungbuk, 2017.
- [28] S. H. Park, S. A. Kim. "Cultural experience and multi-cultural awareness in early adolescent : relationship among openness, acceptance, and respect -focused on G metropolitan c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9, No.7, pp.27-50, 2012.
UCI: <http://uci.or.kr/G704-000387.2012.19.7.012>
- [29] K. K. Kim, J. H. Lee, K. H. Yi,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affecting multicultural acceptance among Korean adults: Focusing on the effects of educational attainment",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Vol.25, No.1, pp.1-28, 2015.
UCI: <http://uci.or.kr/G704-001276.2015.25.1.001>
- [30] H. S. Park, "Research on determinant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mong general teenag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l University, Anyang, 2015.
- [31] N. Y. Yoo, "Study on Social Distance Youth of Multicultural Families - Focused on General Youth in Gimpo City -", *Youth Culture Form*, Vol.21, pp.174-203, 2009.
UCI: <http://uci.or.kr/G704-SER000002119.2009..21.002>
- [32] I. S. Chang,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teacher's ethnic identifications and attitudes toward language diversity : a recursive path analysi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2002.
- [33] J. H. Kim, "A study on the effect of hands-on interchange activities on multicultural aware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2011.

김 경 희(Kyoung-Hee Kim)

[종신회원]



- 1997년 8월 :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간호 (보건학석사)
- 2006년 2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1981년 3월 ~ 2012년 8월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재직(최종직위 원무과장)
- 2012년 9월 ~ 현재 :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아동간호, 건강증진